

7월 고용률 최대·실업률 최저...증가세는 두달 연속 주춤

통계청 '2022년 7월 고용동향' 발표
82만6000명 증가...절반은 60세 이상

지난달 취업자 수가 82만명 이상 늘어 17개월 연속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증가 폭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등 고용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절반 이상은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취업자 증가 폭도 두 달 연속 축소되는 등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

7000명)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83만1000명)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 확대됐지만, 6월(84만1000명)부터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7만6000명(4.1%)이나 늘었다.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최대 증가다. 기타 기계장비제조업이 증가한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개선세를 보이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4.9%), 정보통신업(9만5000명·10.6%) 등에서도 고용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5000명·-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만3000명·-2.0%)에서 줄었다. 비대면·온라인 전환으로 점포 수가 줄면서 금융 및 보험업(-2만1000명·-2.6%)도 7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늘었다. 증가한 일자리 82만600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일자리다. 50대 19만4000명, 20대 9만5000명, 30대에서도 6만2000명이 증가했으나 40대에서는 1000명 감소했다.

공미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0대는 교육업,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분야에서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은 제조업, 농림업, 보건복지업에서 호조를 보였다"면서 "40대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47.7%로 전년보다 1년 전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9만5000명(6.0%)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2000명

(-1.1%), 7만7000명(-6.1%) 감소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1.1%) 증가했지만, 무급 가족 종사자는 6만7000명(-6.2%)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6만6000명으로 91만4000명(4.3%) 증가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7만2000명으로 1만8000명(-0.3%)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도 8000명(-0.4%) 쪼그라들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p 오른 69.1%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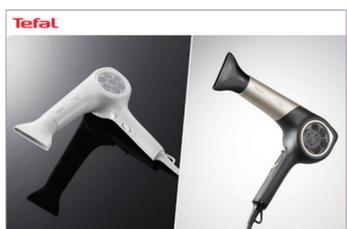
지난달 실업자는 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9.1%)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만5000명(-3.5%)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18만3000명(-7.8%)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8000명 줄었다.

공 국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지만,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8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상 회복 등이 취업에 반영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테팔, 헤어드라이어 2종 출시



테팔이 BLDC 모터로 한여름에도 빠르고 쾌적한 모발 건조가 가능한 헤어드라이어 2종을 선보인다.

테팔은 '에어플러스 BLDC'와 '에어마스터 BLDC'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제품은 1900W 파워의 초고속 디지털 BLDC 모터를 탑재했다. 초강력 바람으로 머릿살이 짧거나 길이가 긴 모발도 순식간에 말려 준다.

신제품은 온도와 풍속이 한 번에 조절되는 3단계 세팅으로 맞춤 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일링 하기 좋은 부드러운 바람의 1단계, 가벼운

스타일링과 건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발 보호 바람의 2단계, 초고속 건조를 돕는 강력한 바람의 3단계가 있다.

또 미열 없이 차가운 냉풍은 머릿결 보호와 온풍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 냉풍 버튼은 고정식으로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 없이 편리하다. 바람을 한곳으로 모아주는 10mm 슬립 노즐로 섬세한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이 제품은 일반 DC 모터가 아닌 BLDC 모터의 적용으로 마모되지 쉬운 브러시가 없다. 고속회전에 무리가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모터에 브러시가 마찰되며 생기는 미세 물질 배출이 없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다.

화이트 색상의 에어플러스 BLDC는 전국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블랙 색상에 실버로 포인트를 준 에어마스터 BLDC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소노시즌, 베이직 매트리스·메모리폼 토퍼 출시



대형소노시즌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소노시즌은 베이직 매트리스와 토퍼 신제품을 출시하고 제품 강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소노시즌은 이번 베이직 매트리스와 토퍼 신제품 출시로 7~27cm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갖추게 됐다.

소노시즌 베이직 매트리스는 합리적인 가격의 높은 가성비로 메모리폼 매트리스 입문자나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머리부터 발까지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안정성·쾌적함 갖춘 제품력

인체공학적 설계의 서포트 레이어와 우수한 복원력과 통기성을 갖춘 오픈셀 구조의 컴포트 레이어 2중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제품은 리프레쉬 커버를 사용해 흡습성·쾌적성이 좋아 열대야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사이즈는 슈퍼싱글(SS)과 퀸(Q), 킹(K) 세 가지다.

소노시즌 메모리폼 토퍼는 소노시즌이 선보이는 첫번째 토퍼 제품이다. 탄탄한 지지력의 하드 레이어와 통기성·복원력·쿠션감이 우수한 소프트 레이어의 듀얼 폼 구조로 구성돼 있다. 매트리스에서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도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친환경 섬유 인증인 '옥토크스 스탠다드 100' 1등급 인증을 받았다. 보관용 가방과 버클이 함께 제공된다. 캠핑·차박을 할 때 매트리스에 함께 사용하기 좋은 7cm 제품, 바닥에 깔고 사용하기 좋은 10cm 제품으로 출시됐다. 사이즈는 슈퍼싱글(SS)과 퀸(Q) 두 가지다.

소노시즌 베이직 매트리스는 온라인 채널에서만, 소노시즌 메모리폼 토퍼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된다. 9월30일까지 1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최이슬기자

CJ제일제당,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 출시

CJ제일제당은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 비엔나'와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 샌드위치팩'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 비엔나는 기존 소시지 반찬을 단백질 가득한 닭가슴살로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큼직한 한입 크기에 닭가슴살이 꽉 차 있고 톡 터지는 식감이 특징이다.

The 더건강한 닭가슴살 샌드위치팩은 짜지 않고 담백해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잘 어울린다. 씹으로도 즐길 수 있고 굽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

CJ더마켓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이번 신제품 2종을 최대 33% 할인하는 기획전전을 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담백한 닭가슴살을



활용해 요리를 하거나 도시락, 샐러드 등을 직접 만들어 즐기는 트렌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우윳값 갈등 심화에 난처한 유가공 업계...왜?

낙농가, 유가공업체에 '선 원유가격 인상, 후 낙농제도개편' 요구

우유 및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를 용도별로 가격을 나누지는 차등 가격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낙농가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낙농가 단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을 한 후에 차등 가격제 같은 제도 개편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유업계들은 정부와 낙농가의 중간에 끼어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원유 가격을 결정했던 원유 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 하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차등 가격제는 음용유와 버터, 치즈 등에 쓰이는 원유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낙농가는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한 원유를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정한다면 농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유 기본 가격 조정협상위원회는 아직 협상단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상황이 장기화하자 낙농 단체들은 한국유가공협회에 원유가격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한편 개별기업에게는 공문을 보내 원유 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원유 가격은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 18원에 올해 상승한 생산단가 34원까지 합친 52원 ±1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낙농가는 일단 가격 인상 협상부터 진행한 뒤 낙농제도개편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낙농가 한 관계자는 "정부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농제도개편 논의가 중단되고 유업계는 상생 정신을 어긴 채 원유가격 협상장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국 낙농가들이 더 이상 못살겠다며 협회에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공 업체들은 낙농업계 요구가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낙농제도개편을 먼저 처리한 뒤 원유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정부 방침을 어기고 원유 가격 협상을 우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도별로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 뒤 원유 가격 인상을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개별 기업이 함부로 나서서 낙농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낙농제도개편 논의가 이뤄진 뒤 낙농가의 원유 가격 인상안도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가공 업체들의 이 같은 입장에 낙농가는 강경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낙농가는 지난 8일과 9일에 매일유업 팜택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원유 가격 우선 협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유가공 업체들은 이 같은 낙농가의 강경 방침은 물론 향후 낙농가의 납유 거부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낙농가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유가공 업체의 제품 생산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향후 사태 추이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낙농가 집단 행동은 소비자들이 최악의 경우 우유 제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우유데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공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낙농가는 낙농정책 변경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낙농가의 납유 거부 사태가 불거지면 낙농가는 물론 유가공 업체들도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정부와 낙농가가 하루빨리 만만한 타협점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파리바게뜨, '장수 막걸리 셰이크' 할인 행사



파리바게뜨는 장수 막걸리 셰이크 구매 시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말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서울 장수와 손잡고 선보인 장수 막걸리 셰이크의 인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기획했다. 오는 15일까지 장수 막걸리 셰이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해피멤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행사 참여 매장 및 상세한 내용은 파리바게뜨 공식 홈페이지 및 해피멤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시스